



간호행정자의 역할과 기능



유 목 기
(고려병원 사무부 차장)

一般的으로 行政의 定義를 2人 以上이 共同目標을 達成하기 爲하여 協同하는 集團의 모든 合理的인 行爲라고 하고있다. 行政의 前提要件이 2人 以上이어야 하고 目標이 共同이어야 하며 目標을 達成하기 爲해서는 協同해야 하고 그 協同 역시 合理的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病院看護 行政도 患者看護를 잘하기 爲하여 支援해 주는 一連의 合理的인 活動이라 定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病院看護行政이 理想的으로 發展하지 못한 原因이 무엇이며 指向해야 할 方向이 무엇인지 살펴 보기로 한다.

1. 우리나라 病院의 特性

가. 落後性을 脫皮 못한 經營

아직 우리 病院界는 傳統的이고 排他的이며 非合理的인 經營을 脫皮하지 못하고 있으며 經驗에 便乘한, 非現實의이고 非科學的인 經營으로 經營技術이 無視當하는 經營不在의 現實이 아닌가 싶다.

나. 方向感覺이 흐려진 診療風土

病院人이 患者를 診療하는 使命意識이 퇴색되

어 가고있는 現實은 그 原因이 어디에 있든지 問題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勿論 內外的인 環境의 變化 탓도 있지만 우리 社會의 變化된 價値觀에 便乘한 탓으로 생각된다. 醫師集團은 自己集團에 便利하게 模倣된 診療 pattern으로 診療秩序가 흐트러져가는 例도 看過할 수 없는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醫師가 해야할 일을 看護員이, 看護員이 해야할 일을 保護者가 하는 診療 環境은 改善되어야 한다. 이는 獨步的인 存在로 君臨하려는 一部 醫師의 낮은 權威意識에서 起因된 것으로 생각된다. 醫師와 其他 病院人은 主從關係가 아니라 共同的 治療目標을 達成하기 爲한 協向者로서의, 責任을 다하는 診療 pattern이 定立되어야 할 것이다.

다. 多樣한 看護業務

看護員은 1人 1役이 아니라 1人 5~6役으로 어떤면에서 固有業務에 充實하기 보다는 雜務에 시달리고 있는 現實 또한 問題가 아닐 수 없다. 看護員은 固有業務 以外에 醫師가 해야할 일을 맡아하고 있음은 勿論 때로는 經營者가 되어 病院收入의 源泉者로서의 役割 때로는 保護者로서

事務要員으로서, 治療費是非의 對象者로서, 여기에 또 病院評價의 對象으로 그 말은 業務가 多樣하다. 이러한 勤務環境에서 看護行政이 어떻게 發展하겠는가?

라. 두얼굴을 가진 診療酬價

橫行酬價綜合酬價=一般酬價와 保險酬價(個別酬價)를 混用하는 診療酬價體系는 솔한 問題點과 矛盾을 안고있다. 이로 因하여 患者와 病院間에 不信을 孕胎시키며 不親切의 媒體役을 하게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低廉한 保險酬價로는 病院運營이 되지 않으니 一般酬價만으로 赤字要因을 除去하는 損益 函數關係를 이루고 있다. 所得水準이 높은 患者는 거의가 保險患者이고 所得水準이 낮은 患者는 비싼 一般酬價의 適用對象이 되어있는 現在の 酬價體系는 어떤 形態이건 是正되어야 한다. 이런 事項들이 오늘의 遊院 現實이기에 根本적으로 얼굴을 바꾸어우랄 時代的 要請을 맞고 있다.

2. 診療및 經營風土의 改善

가. 不信風潮의 解消

患者로부터 不信 當하는 醫師와 病院이라면 患者가 滿足할 治療를 期待할 수 없다. 醫師가 拘束되고 날카로운 批判이 加해져도 同情論은 찾아 볼 수 없는 世情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 이는 患者의 바람이 무엇인가를 찾아 最善을 다하여 充足시키는 걸 뿐일 것이다. 患者는 便하고 값 싸고 水準 높은 診療 그리고 빠른 時日에 完治를 希望하고 있다. 이러한 欲求를 滿足시키기 爲해서는 病院人은 모두 主治醫라는 생각으로 最善을 다해야겠지만 그 중에도 가장 比重이 높은 것은 看護員이 使命에 充實함이다. 看護員의 親切與否로 病院水準을 評價하는 境遇를 흔히 느끼고 있다.

나. 人間關係改善

病院은 權威를 자랑하는 選民意識의 活動場所가 아니라는 것이 認識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人間尊重의 價値尺度가 確立되고 專門性이 認定되어 病院機能이 調和 藝術로 昇華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患者中心病院으로 탈바꿈하는 捷徑이며 病院內 모든 職種間에 身分的 差待遇를 解消하는 길이 될 것이다.

다. 中斷 없는 教育

病院人은 專門人이기 前에 한 人間으로서의 尊敬을 받을 수 있는 全人教育에 疎忽함이 없어야 한다. 人間尊重, 人格陶冶, 品位維持는 모든 病院人으로 하여금 生活化되어야 하고 끊임없는 教育이 뒤따라 病院行政에 對한 關心度를 보다 높여가야 한다.

라. 看護員의 任務

看護員은 固有業務에 充實하여야 함은 勿論이지만 恒常 內 병원(My Hospital)이라는 觀念이 머리에서 떨어서는 안된다. 事實 看護員은 病院經營이란 側面에서 보면 收入의 源泉이요 消費의 源泉이며 病院 Image making의 主役이기도 하다.

마. 看護員의 職位向上

病院에서 看護員의 職務가 보다 높게 評價되어야 하고 滿足한 待遇로 使命에 充實할 수 있도록 誘導되어야 한다. 反面 看護員은 自己開發에 不斷한 努力이 繼續되어야 하고 또한 自己反省에 恒常 인색해서는 안된다. 從來의 自己保護의 方便으로 動員된 實力行使는 스스로의 地位나 處遇改善에 보탬이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社會人의 빈축을 사지 않았던가? 國民의 呼應없는 示威는 百害無益이라는 教訓 또한 잊어서는 안된다. 看護員, 나는 患者에 얼마나 奉仕하는 姿勢로 使命을 다해 왔는가? 或은나 患者를 商品化하지는 않았는가? 모두 함께 反省하고 病院內에 不合理하고 不道德한 事例를 낱알이 追放하는데 앞장서서 우리의 使命에 부끄러움이 없는 날 看護員의 職位는 保障될 것이며 行政家로서도 遜色없는 職位 또한 保障될 것이다.